



지금 우리 국민은 연평도 폭격사건 앞에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할 일은 북한을 규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체와 본질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3, 40대 국민의 40%가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남한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젊은이들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를 희망한다.

북한은 악(惡)과 거짓의 나라

북한은 악과 거짓의 나라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 김정일을 추종하는 좌파세력이 이렇게 많고 3, 40대 중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지금은 486세대가 된 386세대 때문이다. 이들은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 때 학생세력이었다. 원래 승리의 경험을 한 세대는 기(氣)가 세다. 그런데 이 세대가 대부분 주사파이다. 80년대 중반 아주 어려운 시기에 김일

성 주체사상이 유행하면서 주사파가 학생운동의 주류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시민 운동, 언론계, 노동운동, 전교조, 정치계 등 사방으로 뻗어나가 중북좌파 세력을 크게 성장시켰다.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 평택 미군 철수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광우병 촛불시위, 또 최근의 G20 반대 투쟁 등 대한민국을 흔드는 운동을 전부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조차도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좌파였던 젊은 시절

나도 젊은 시절에 좌파였다. 대학생 때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 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82년에서 88년까지 미국에 유학가서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교포사회에서 북한 방문이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사실 북한에 한 주일간 방문하는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끔가다 아들 집에 한 달간 머물다 온 노인들이 있었다. 내가 다닌 뉴욕 부르클린 한인교회에도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방북 기간 중, 한밤중에 아들과 단둘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북한사회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내게 북한이 얼마나 거짓의 나라인가를 알려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미망에서 깨어났다. 88년에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 기독교학생운동 후배들이 전부 주사파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처음 6개월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들을 의식화시켜 진보운동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후배를 몰래 불러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이 화근이 되어 후배들이 나를 개량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내쫓는 운동을 했다. 결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직에서 쫓겨났다. 그 바람에 NCC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갈 데도 없어지게 됐다. 그때 새로 시작한 운동이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이었다. 경실련은 초기에 온건한 합법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386세대가 성장하여 시민운동으로 진출하면서 시민운동도 좌편향으로 가게 되었다. 결국 나는 경실련까지도 포기하고 다시 좌파와 맞서는 운동을 시작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

그런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느낀 사건이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이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천 명이 모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 작전만 없었으면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분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푹 떨어지는 중북(從北) 좌파 세력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중북좌파세력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그들은 전교조, 전농, 민노총, 민노당, 범민련, 한총련, 민중연대, 통일연대, 그리고 나중에 진보연대로 발전하였다. 숫자도 3~40만명이 된다. 그들은 사회각계에 침



투해서 나라를 흔드는 일을 하는 세력이었다. 그때 시민단체에 메일을 보내어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랬더니 한 단체도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절감했다.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다. 내가 종북(從北) 좌파를 반대하면 틀림없이 후배들이 내가 꼴통보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모를 감수하더라도 할말을 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했다. 좌파들이 평택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며 비무장 군인을 죽창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평택까지 내려가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그 데모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군복을 입은 재향군인들이었다. 전에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오는 재향군인들은 극우라고 생각하여 싫어했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택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였다.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인 표를 얻고 출범한 것도 우리 국민의 좌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전교조가 힘을 얻을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나 하는 생각에서 BBK의혹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를 하여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

종북좌파세력은 청산되어야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 때 진보진영은 종북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제일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민노당이었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이들이 민노당 주류를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더 이상 그들과 당을 같

이 할 수 없다며 뛰쳐나와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만일 그때의 분위기가 계속되었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종북좌파들을 크게 청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광우병 촛불시위가 터졌다. 이 촛불시위는 종북좌파들의 작품으로 강기갑, 천영세, 박석운, 오종렬, 한상렬 등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을 주동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동했다. 그리고 월드컵 붉은악마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었다. 이 촛불시위가 성공하는 바람에 위기에 몰렸던 종북좌파세력이 다시 진보진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좌파시민단체들이 다시 들러리를 서게 되었다. 이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역사 속에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있다.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도 세력으로서의 친일파는 청산되었다. 세력으로서의 군사독재세력도 청산되었다. 세번째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이 종북좌파세력이다. 이들이 청산되어 민주당과 합리적 진보세력이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비로소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도 우리에게서 절호의 기회였다. 45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나라사랑범국민운동을 만들어 종북좌파를 청산하는 운동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채 출범하기도 전에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다.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국회의원들 백30명



이 서명을 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서명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광주 기독교단협의회와의 입장 표명이다. 지난 화요일에 이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들리는 말로는 민주당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광주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40%이다. 그래서 기독교 표를 얻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의 1,500개 교회들이 합심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광주에서 전남, 전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직권상정을 할 것이고 그때에는 민주당도 악착같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응징이 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을 응징하는 일이다. 교전 규칙에 따라 단호하게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후루시초프가 큐바에 미사일기지를 만들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3차대전 발발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봉쇄를 명령했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라 라디오로 3차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뉴스를 들었다. 어린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결국 후루시초프가 미사일을 실은 소련 선박을 회항시켜서 3차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와 안보는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사적인 수단보다 비군사적인 수단이 더 중요하다. 한국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열

배, 스무 배 더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변할 것이며, 이 방법은 우리가 진심으로 북한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한 응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이번에 북한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근본원인은 남북관계 경색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응징하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그럴 듯하다. 하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를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북평화를 정착시킨 점이 있지만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어 이룬 사이비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이 실현되는 평화이다. 한국이 인권개선을 주장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평화는 가짜평화, 위장평화일 뿐이다.

술직이 나도 십년 전에는 한반도에 평화부터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만나본 후에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뼈저리게 느꼈다.

인권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인권 없이 평화만 생각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다. 북한 주민들의 혹독한 인권유린 참상을 외면하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북한 김정일로부터 보장받으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일제시대의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야 한다. 그래서 끝내는 북한이 핵도 포기하고 인권도 개선하게 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게 단호한 입장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수도 없이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집회를 했다.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정치난민들이 한국에 왔지만 그들을 돕지 않았다. 혹시나 그들을 돕다가 탈북자 돕는 일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이다. 파룬궁 문제도 외면했다.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할 때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그르 사태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때까지는 탈북난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중국은 탈북난민 문제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뜨는 행동을 했다. 천안함 폭침문제에서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고 천하에 기가 막히는 북한의 3대세습도 지지했고 6.25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한 시진핑의 망언까지 공식 지지했다. 중국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중국 정부가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다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중국이 경제대국의 위상을 걸맞는 인권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나라는 바로 한국일 것이다.

이 점은 얼마 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이 국가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도 거침없이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의 패권적 중화(中華)주의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절감했

가쓰라-테프트 밀약과 같은 것이다. 이 밀약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용인하는 밀약으로 두 수퍼파워의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세계평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한없는 고통을 주는 밀약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러한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북한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야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현한 평화는 사이비 평화였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경색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남과 북이 서로 자기가 바라는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때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다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면서 인권문제는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함도 폭침시키고 연평도도 폭격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북핵의 위협 하에서 한국사람들이 굴종과 굴욕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퇴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당하며 살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같은 테러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은 길으로는 화해와 사랑을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굴욕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 이번에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이를 환영하고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한 이유도 경제대국인 중국이 계속 인권 열등국으로 남아 있으면 인류평화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패권적 중화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도 중국이 반드시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제 중국민주화의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온 인류가 다같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특히 한국 국민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다.

많은 나라가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국은 자칫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약소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선진국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의식수준도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국익에 손해가 되더라도 인류평화를 위해 할 말을 해야 한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까지 약소국민이 되면 안 된다. 정부를 대신해서 시민들이 “중국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석방하라!”고 외쳐야 한다. 지년간 7, 80년대에 한국이 군사독재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도운 것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중국민주화운동을 돕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전 세계의 염원을 중국은 절대로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조금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중국은 겉모양은 거대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돌팔매에 그냥 무너지는 맥없는 골리앗에 불과하다.

그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중단하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자는 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크게 흥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擴戰)으로 이어지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응징도 할 수 있는 한 비(非)군사적인 방법을 써야 하며 그 방법이 훨

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북을 붕괴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이 개선되고 체제가 유연해져야 붕괴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 너무도 절망하지만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무리 포격이 교차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북한동포 돕기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의 북한이 97년과 유사하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사자(餓死者)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게 식량을 갖다 줄 수는 없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두만강변에서 직접 돕는 방안이다.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자력갱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두만강변에서 얼마든지 직접 돕기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조선족 동포를 보내어 투명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방법으로 돕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동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통일을 향해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격이 교차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북한동포 돕기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동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통일을 향해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